

지역 소식

'가평의 기적' 제70주년: '후기의 힐라맨과 이천 용사'를 기억하며

70년 전 한국 전쟁 당시, 이 땅에서 있었던 미 유타주 방위군 제213야전포병대대의 '가평의 기적' 이야기



앨 마서의 '힐라맨과 이천 용사'는 친숙한 물문경 이야기이다. '결코 싸워본 일이 없었[던] 젊은 용사들은 '기적적인 힘을 지니고' 레이맨인 군대와 싸웠다. 이들은 전투에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중에는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었다. (앨마서 56:47, 56:56) 아마 경전 속에서만 볼 수 있는 수천 년 전의 기적 이야기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와 모든 면에서 유사한 또 다른 '기적'이 바로 이 후기에 실재했다. 불과 70년 전, 한국 전쟁 당시 이 땅에서 있었던 미 유타주 방위군 제213야전포병대대의 '가평의 기적' 이야기이다.

가평의 기적: 후기성도 군인 240명, 중공군 4000명에 맞서다

1951년 5월 26일, 경기도 가평에서 중공군의 공격이 감행되던 무렵에, 프랭크 델리 중령이 이끄는 제213야전포병대대 600명은 아군 보병을 대포로 지원하기 위해 가평군 북면 화악리에 진지를 구축했다. 213대대의 다섯 포대 중 본부 포대와 에이블 포대 소속 240명은 좁은 계곡 입구에 진을 쳤으며, 나머지 세 포대는 후방에 진을 쳤다.

그날 저녁, 213대대는 예상치 못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들이 지원하던 한국군이 사전 통지 없이 후퇴한 것이었다. 미군 보병연대는 중공군 4,000명을 포위하기 위하여 전진 이동했는데, 공격을 받은 중공군이 포위망을 벗어나기

위해 유일한 탈출구인 계곡 입구를 통해 본부 포대와 에이블 포대의 진지로 진격해 왔다. 그리하여 보병의 엄호 없이 고립된 두 포대의 병사 240명은 약 17배에 달하는 4,000명의 중공군과 맞서게 되었다.

유타 남부 출신인 델리 중령과 젊은 병사들은 서로 형제, 친척, 친구였으며, 충실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이었다. 병사들은 17-23세의 학생, 농부, 광부 등으로 전쟁의 경험이 없었다. 그러나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누구를 바라보아야 할지 즉각 알았다. 델리 중령은 "저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했고, 우리의 안전은 창조주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분명했고, 모든 병사는 침착하고 재빠르게 일련의 지시를 따랐습니다."라고 회상했다.

병사들은 무기를 잡고 방어 진지를 구축했다. 105mm 곡사포의 원거리 사격이 쏟아졌다. 제2차 세계대전의 베테랑 군인이었던 델리 중령은 신관을 0.5초로 설정하고, 포탄이 땅에 닿기 전 공중에서 터지게 하는 전술로 적진에 큰 타격을 입혔다. 중공군의 총알도 주변으로 쏟아졌다. 적군이 계곡을 돌파하기 위하여 밀고 나오자, 소총전을 벌이던 병사들은 격렬한 백병전까지 벌였다.

동이 트고 전투가 잠시 뜸해졌을 때, 에이블 포대 지휘관

레이 콕스 대위와 18명의 정찰대는 계곡을 올라가며 수많은 중공군을 사살했다. 수백 명의 중공군은 이들을 보자마자 총을 내려놓고 항복했다. 이들에 걸친 전투에서 중공군 350명이 사망했으며, 붙잡힌 포로는 850명에 달했다. 놀랍게도 213대대에는 소수의 부상자만 있을 뿐, 사망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중공군들은 240명의 작은 포대에 어떻게 무참히 패했는지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 포로들은 이렇게 답했다. “그들을 쫓지만, 그들은 쓰러지지 않았다.”

240명의 작은 대대가 4,000명의 적군에 맞서 거둔 완전한 승리는 세계 전쟁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기적의 전과이다. 이에 이 전투를 ‘가평의 기적’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후기의 힐라맨과 이천 용사, 성약에 충실함으로써 보호받다

213대대는 전쟁터에 나서기 전에, 유타 세인트 조지 성전의 성전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예언적인 축복을 받았다. “여러분이 성전 성약대로 의롭고 도덕적인 생활을 하면 생명을 잃지 않고 모두 무사 귀환할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기억했으며, 성전 성약에 충신했다. 이에 생사가 오가는 전쟁터에서 신성한 보호가 이들 위에 함께했다. 결국 ‘한 명도 땅에 쓰러[지지 않고], 600명 모두가 무사 귀환함으로써 이 예언적 축복은 온전히 성취되었다.(앨마서 56:56)

한편, 프랭크 델리 중령은 마치 힐라맨처럼 아들을 돌보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병사들의 복리와 안전을 책임졌다. 매일 아침, 그는 하루의 계획을 세우며 혼자 시간을 내어 기도했다. 기도하는 시간에는 천막 밖에 흰색 깃발을 꽂았고, 깃발이 있을 때는 비상 상황이 아니면 아무도 그를 방해하지 않도록 명령했다. 그는 “이 시간에 최고 사령관인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있다”라고 말했으며, “우리를 지켜줄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뿐”이라고 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저는 어릴 때부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늘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믿었고 기도의 힘을 믿었습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지[신대]’는 물론경의 약속은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후기 성도 군인들 위에 그대로 주어졌다.(앨마서 56:47) 이들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보여 주신 기적이 이 후기에도 똑같이 실재한다는 증거이자, 하나님과 맺은 성약에 충실할 때 보호받는다라는 원리의 입증이다.

교회와 지역 사회, 가평 전투 70주년을 기념하다

지난 5월 26일, ‘미군 한국전쟁참전 및 가평전투 70주년

기념식’이 가평군 북면 한국전쟁미군참전기념비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한국전쟁맹방국용사선양사업회(회장 최승성) 주관과 한국헬핑핸즈의 주최로 마련되었다.

서울 선교부의 브래드 포드 테일러 회장은 몇 년 전, 213대대의 가평 전투 이야기를 접하고 이에 대해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는 부름을 받아 한국에 온 후에, 가평 전투를 더 깊이 조사했으며, 한국맹방국용사선양사업회 최승성 회장을 만나 각별한 인연을 맺어왔다.

최 회장은 가평 전투에 참전한 미군들의 정신과 업적을 계승하기 위해 수년간 힘써 왔으며, 이들을 기리기 위한 한국전쟁미군참전기념비를 세운 바 있다. 두 사람의 인연과 우정을 시작으로, 교회와 지역 사회는 함께 ‘가평의 기적’을 대중에게 소개하고, 213대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소통하고 협력하게 되었다. 충실한 후기 성도 군인들이 남긴 신앙의 발자취가 70년이 흐른 뒤, 한국 교회와 지역 사회가 경계를 허물고 가까워질 수 있는 토대가 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철십인 정동환 장로, 한국헬핑핸즈 오희근 이사장, 가평군 지역구 국회의원 최춘식 의원, 최승성 한국전쟁맹방국용사선양사업회장, 장석운 가평군재향군인회장, 가평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서울 선교부 합창단이 애국가와 미국 국가를 제창함으로써 기념식이 시작되었다. 이들 중에는 한국 전쟁에 참전한 미군의 후손들이 다수 있었다. 식은 환영사, 가평 전투 역사, 추모사, 추모 예배, 헌화 순으로 진행됐다.

테일러 회장은 추모사를 통해 “우리 선조들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었으며,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다. 그럼에도 이 젊은 용사들은 큰 신앙으로 한국에 왔고, 한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다. 선조들의 피와 희생이 거름이 되어 우리는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하다.”며 눈물을 보였다.

추모사를 전한 최춘식 국회의원은 213대대 참전용사들에 대해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외면하지 않고, 머나먼 타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용맹하게 싸운 영웅”이라고 칭하고, “자유민주주의는 참전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얻게 된 것임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며 경의를 표했다.

추모 예배 후, 합창단이 부르는 애국가가 다시 한번 울려 퍼지며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후기의 힐라맨과 이천 용사’가 보여준 숭고한 헌신과 신앙의 모범은 후손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

자택에서* 장년 선교사로 봉사하며

부산 선교부 부부 선교사 길영권 장로, 임영실 자매

부 산 선교부로 부름을 받아, 우리 부부는 온라인 MTC를 거쳐 지난해 2020년 11월부터 선교사로서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보통 전임 선교사들은 대부분 자신의 집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선교 사업을 하는데, 자택에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으니 은퇴한 나에게는 더 없이 적당하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선교 사업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좀더 자립한 상태로 선교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코로나19로 인해 선교 사업도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있다. 전임 선교사들을 가까이 하면서, 재능 있는 젊은이들이 자신의 장점과 배운 지식을 활용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며 특별한 배움도 얻었다.

부산 선교부 킬백 회장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지명하신 임무는 부산 스테이크의 전임 선교사가 없는 지역에서 회원과 지도자를 돕는 일이었다. 또한 부산 선교부 지역에 있는 모든 전임 선교사 숙소를 방문해서 청결과 위생, 안전, 시설 상태를 점검하는 임무도 받았다. 우리 부부는 모든 선교사 숙소를 방문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방문을 시작을 하면서 젊은 시절 동반자와 전도하던 때가 어제처럼 떠올랐다. 우리 부부는 38년 전에 청년 전임 선교사로서 각자 선교 사업을 마치고 귀환했었다.

전임 선교사들의 숙소는 아주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현납이 되지 않은 새로운 숙소는 방문할 때 직접 현납하기도 하고 또는 장로님들에게 현납하는 방법과 순서를 알려 주어, 숙소가 안전하고 주님의 영이 거하도록 도왔다.

내인 임영실 자매는 전임 선교사들을 건강에 도움이 되고자 모든 전임 선교사들에게 한끼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 가고 싶다는 의견을 냈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대부분의 회원들이 선교사를 초대할 수 없었고, 정부의 지침에 따라 음식점도 갈 수가 없었다. 부부로서 상의한 뒤, 우리는 선교사들을 방문할 때마다 따뜻한 집밥을 준비하여 선물했다.

조금 벽차기도 했지만 우리는 아들딸 같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건강한 음식과 정결한 숙소를 갖도록 도왔다. 우리의 봉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주님께 바치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서 받아들이시고 기쁘게 생각하신다는 느낌이 들면서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다.

매주 안식일 오후 8시가 되면 선교사들은 온라인으로 함께 간중 모임을 연다. 잘 준비된 주님의 군대가 성장하는 모습은 앞날에 대한 큰 희망을 갖게 한다.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생각을 할 때,

마음에 큰 기쁨이 가득 찬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익혀 왔기 때문에 다방면에서 익숙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다. 특히 장년의 자매님들은 요리 박사이자,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사람이 힘을 내도록 돕는 심리 치료사이며, 아픈 사람을 돌보고 건강하게 돕는 간호사요, 의사이다. 또 글을 잘 써서 누군가의 신앙을 북돋을 수 있는 신앙의 친구도 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다양하게 주님의 사업을 위해 쓸 수 있다는 것이 우리를 기쁘고 행복하게 한다.

분명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자잘한 어려움도 많고 사소하게 실망하는 일도 있겠지만, 이러한 모든 일들은 훗날에 우리들이 주님의 일을 할 때에 큰 쓰임이 되고 유익이 되고 경험이 될 것이다. 주님에게 기꺼이 순종하면 이 시련을 이겨 나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특히,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을 극복하는 방법을 이 봉사 기간을 통해 배우게 되었다.

힘들 때 연차대회에서 우흐트도르프 회장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위로를 받는다. “때때로 우리는 자신이 자질을 ‘디’ 갖지 못했다며, 더 영적이고, 존경받고, 지적이며, 건강하고, 부유하고, 다정하며,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며 낙담합니다. 물론, 더 훌륭해지길 원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약점이 있기에 좀 더 겸손하게 그리스도에게로 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반대로,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이용해 우리를 낙담시켜 어떤 일을 시도조차 못하게 만듭니다. ... 살면서 배운 교훈 하나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자질을 “디” 갖출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금 모습 그대로 데려다가 함께 일하십니다. 여러분은 기꺼이 하는 마음과 믿고자 하는 열망과 주님에 대한 신뢰만 있으면 됩니다.”

나는 아주 오래 전에,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법을 배웠다. 항상 하나님의 영을 지니고자 힘쓸 때 옳은 길로 인도하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된다.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우리 삶이 빛나고 행복과 기쁨으로 인도하실 것을 알고 있다. 주님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에 감사드린다. ■

* “자택 거주(LAH) 장년 선교사”: 이들은 자신의 집에 거주하며 (LAH: Live-At-Home) 봉사하는 장년 선교사이다. 거주지를 제외하고는 기존 장년 선교사와 똑같이 봉사하며, 선교사 기금 중 주거 비용이 제외된다.



“침례를 받고 싶은데, 도움을 주시겠어요?”

부산 스테이크 김준혁 형제

나는 장로교 가정에서 자랐다. 태어나자마자 유아 세례를 받았고, 사춘기 시절에는 주일에 교회를 빼먹어 아버지께 혼이 나기도 했다.

내가 물문경과 조셉 스미스 이세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처음 접한 것은 2019년 연말, 내가 곧 스물한 번째 생일을 맞을 즈음이었다. 그 시기는 내 삶의 개인적인 영적 부흥기였다. 나는 그동안의 영적 사망 상태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바르고 의로운 것들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다. 부모님과 신앙에 관해 매일같이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다.

어느 날 한 인터넷 백과사전에서 이 후기의 사업에 대한 정보를 마주치게 되었다. 이 기이한 사업에 대해 강하고, 긍정적인 호기심이 들었다. 뭔가 '이거다!'하는 직감이 들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좀 더 자세히 검색해 보았고, 조셉 스미스 역사서의 초반부를 읽게 되었다. 나는 그것을 읽으며 정말 큰 감동을 받았다. 의로움을 찾아 헤매던 나에게 하늘에서 큰 보상을 주시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저녁, 나는 어머니께 첫번째 시현에 대해 말씀드렸다. 흥분을 가라앉힐 수 없었던 것 같다. 어머니께서는 웃시면서, “현대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나는 어머니의 말을 믿지 않았다. 나에게서는 첫번째 시현이 참되다는 확신이 있었다. 조셉, 그의 부름이 참되다는 확신이 있었다.

이후 나는 회복된 복음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다. 선교사를 만나지 않더라도 교회 복음 자료실과 같은 인터넷상의 자료를 통해 혼자 복음을 공부하는 것이 가능했다. 전 세계의 의로운 후기 성도 형제자매들이 개인 소셜 미디어 등에 올린 자료도 참고했다.

나는 물문경과 교리와 성약을 읽으면서 정말 큰 충격을 받았다. “탐구하는 자들은 발견할 때까지 멈추지 말라. 발견하면 불안해질 것이며, 불안해질 때에 그들은 경탄할 것이”라는 한 외경*의 구절이 당시 나의 감정 상태를 잘 대변해주는 것 같다.

나는 ‘간악함은 결코 행복이 아니’었음을 확실히 알게 되었고(앨마 41:10),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 간증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주님의 계명을 정확하게 알고 지키고 싶은 소망이 들었고, 지혜의 말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 순결의 법 등 여러 계명을 개인적으로 지키기 시작했다. 특히, 순결의 법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참된 종교의 영원한 원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나는 평화와 기쁨을 알게 되었고, ‘연구와 또 신앙으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교리와 성약 88:118). 교회의 회복된 교리가 참 아름다웠다. 그것은 이 복음이 참되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반년 이상 혼자서 연구하고 계명을 지키는 시기를 보낸 나는 더 이상 침례 받기를 미룰 수 없었다.

그동안 교회와 관련된 여러 소셜 미디어를 소비하고 있었는데, 나의 흔적을 보고는 몇몇 선교사님들이 나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었다. 내가 침례 받기로 결심했을 때, 그들이 보냈던 메시지가 떠올랐다. 나는 작년 9월경, 서울 선교부에서 봉사 중이던 전희주 선교사님이 몇 달 전에 보냈던 페이스북 메시지를 찾았다. 그리고 “제가 침례를 받고 싶은데, 도움을 주시겠어요?”라고 늦은 답장을 보냈다. 전 자매님은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가까운 와드의 선교사님들을 연결해 주었다. 그리고 지난 10월, 부산 스테이크 금정 와드에서 정현우 장로님께 침례 의식을, 윤영도 장로님께 확인 의식을 받았다. 두 분 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과 사랑을 주셨다.

나는 조셉을 도구로 회복된 이 교회가, 사람의 지혜로 세워진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예언되었던 주님의 영광스러운 왕국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 왕국에서 가르치는 창조, 타락, 속죄의 교리가 참됨을 알고 있다. 이 왕국에 사람의 구원 의식을 수행할 유일하고도 참된 권세가 있음을 알고 있다.

나는 미혹되지 않았다. 그 사실을 확실히 안다. 왜냐하면 무엇이 나를 무지로부터 건져주었고, 무엇이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의 참됨을 확인해 주었는지 내가 알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빛과 성신의 권능이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한다. ■

*외경(外經): 가톨릭 교회의 경전 중 하나로서 정경(正經)에 속하지 않는 구약의 제2경전.

새로 부름받은 선교사 안내: 1명

역원 및 단위 조직 변경



김민경 자매
창원 스테이크
진주 와드
서울 남 선교부

광주 스테이크

스테이크 회장: 김정기 형제(전임: 오석중 형제)
제1보좌: 김종인 형제
제2보좌: 박관준 형제

대전 스테이크

대전1 와드 감독: 석동조 형제(전임: 정양수 형제)

서울 동 스테이크

교문 와드 감독: 이상철 형제(전임: 조창훈 형제)

울산 지방부

경주 지부 회장: 김민구 형제(전임: 이주형 형제)

더 많은 지역 소식 기사와 사진을 교회 한국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며,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 교회 한국 페이스북 페이지: fb.com/churchofjesuschristkor
- 기사 제보 및 기타 문의(관리 본부): 02-2232-1441(전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카카오톡 채널 검색)
- 배부 센터: 080-238-8000